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 7월 7일

오전 11시

*송영	13장(Opening Song)
*신앙고백	사도신경(Apostles' Creed)
경배와 찬양	다같이(Praise & Worship)
합심기도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대표기도	김기무 집사(Lead Prayer)
교회소식	사회자(Announcements)
봉헌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봉헌기도	사회자 (Offertory Prayer)
특별찬양	한신옥 전도사 (Special Music)
영어 설교	Sermon in English (Rev. Stephen Lee)
성경봉독	로마서 1장 9-15절 (Rom. 1:9-15)
설교	그리운 로마 교회 (이봉하 목사)
*송영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축도	이봉하 목사(Benediction)

주일에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7월(July)	8월(August)
헌 금 위 원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김수홍 집사 백종희 권사
안 내 위 원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대 표 기 도	이번주: 김기무 집사	다음주: 이조앤 사모
이 번 주 친 교	준비: 고경희 권사	기도: 신혜숙 권사
다 음 주 친 교	준비: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기도: 고경희 권사
이 번 주 헌 화	헌화: 데이빗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다 음 주 헌 화	헌화: 마이클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하고 공항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에게 물으니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말 “홍콩 시내에 지금 데모가 한창 진행 중이라 복잡할 것입니다. 갈 수야 있겠지만 시간 맞춰 돌아오시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불안한 홍콩 시내투어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안내받아 찾아간 곳은 지근거리에 소재한 홍콩에서 가장 크다는 Outlet 백화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매장들에 비하면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4층 건물에 층층이 제법 아이쇼핑을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으리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위를 한 참 돌아다니다 보니 시장기가 들어 먹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그냥 후드코트에서 플라스틱에 포장된 먹거리를 적당히 고른 다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몇 개 안되는 간이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서서 먹는데 그마저도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층계 난간 옆에 털썩 주저앉아 구라파전쟁(?)이 한창중인 주린 육신의 성토를 못 이겨서 꾸역꾸역 빈속을 채우고 있는 서로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이 때 떠오르는 생각은 “아, 홍콩까지 와서 홍콩 반점도 못 들르고 처량한 노숙자 신세가 되어가는구나!” 였습니다.

그저 그랬던 백화점 관광을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이미 사뭇 다른 루저(?)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번 여행의 전조가 되는 거 아냐?”라는 무언의 염려와 근심이 서로의 표정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화점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식당들이 공항 대합실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도착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일에만 급급하다보니 안에 있는 것들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럴듯한 식당에 들어가서 불편했던 심기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후에 웨이터가 내민 메뉴를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드러다 본 후 이것저것을 주문해 먹었지만 기억이 생생한 것은 오직 하나 닭발 요리였습니다.

새벽 1시20분에 출발하는 홍콩발 비행기의 인천 도착은 오전 6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익숙해진 내 조국 대한민국의 인천 공항에서 우리 세 사람은 뜻하지 않게 VIP룸이 아닌 특수 조사실로 안내가 아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한 숨이 저절로 나는데 내 입은 “할렐루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성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옥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옥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옥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옥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2019년 7월 7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성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고국 방문을 마치고

이봉하 목사

가는 길이 고단하였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다시 한 번 그 말의 진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꿈에 부푼 고국방문길이라 그런지 며칠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드는 만큼 최대의 절약, 최선의 효과를 위해 K 집사님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으로 항공권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품엔 가격표가 있는 법, 싸게 구입한 만큼 치려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직항이 아닌 돌아 가는 항로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들어서서 입국수속을 한 다음 짐을 찾아 H 택배에 맡기고 곧 바로 재입국 수속을 한 후 한 발작도 공항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예정에 없는 홍콩행 여객기를 탔습니다. 경험이 있었거나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였다면 이런 일련의 수속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었지만 인천 공항 도착과 홍콩발 비행기의 출발 사이에 시간 간격이 많지 않은 터라 세 식구는 긴 줄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홍콩발 비행기를 제 시간에 승선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선 비행 경험이 많으신 한순진 목사님께서 미리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전 8시 10분이었습니다. 비록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공짜로 홍콩 여행을 한다싶으니 제법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난기류로 인한 다소간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무사히 홍콩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경, 또 다시 예의 입국 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교적 한적했던 새벽 인천 공항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국제공항다운 복잡한 홍콩의 분위기였습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니 낮 12시가 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 탑승 시간인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제법 넉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다운타운을 관통한 다음 이곳저곳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명소를 둘러보기로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교역자 소식 Ministerial News

이봉하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하신 고국 방문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치고 지난 주간에 돌아오심을 감사합니다.

3 KTEE 소식 KTEE News

한순진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간 대구, 서울, 서귀포 등지에서 진행된 TEE 세미나 사역 일정을 은혜 중 마치고 지난 주간에 돌아오심을 감사합니다

4 강단사역 일정 Pulpit planning

그간 진행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 부터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 ‘로마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5 이번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 성구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벧1:6)입니다.

6 수료식 Certificate Award Ceremony

다음 주일(7월14일)에는 수료 TEE 성경연구 예배소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고경희, 권새미, 김미란, 김정민, 백종희, 신혜숙, 오병국, 한신옥)

7 수양회 Encounter/PK Retreat/Children's Camp

미주 한인 나사렛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캠프(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가 오는 7월10-13일에 Temple City에 소재한 선교관에서 열립니다. 이달 7월27-28일(잠정)에 빅베어에 소재한 수양관에서 본교회 어린이 가족 여름 캠프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수양관을 마련해주시는 임철현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8 캘린더 Calendar

- 금요찬양기도 모임(금, 7:30am) 토요조찬기도(토, 7am) 주간새벽기도.
- 한인 나사렛 청소년 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7월10-13일)
- 본교회 어린이 캠프(7월28-29일, 빅베어 수양관)

9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7/14 이조앤 사모 7/21 노은실 집사 7/28 허지영 집사
친교기도 7/14 고경희 권사 7/21 함진옥 집사 7/28 김창웅 집사

10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7/21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7/28 목장별 맛 대결 8/4 백종희 권사
8/11 신혜숙 권사 8/18 이조앤 사모 한신옥 전도사 8/25 교 회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봉헌하신 분들 2019년6월16.23,30일

십 일 조	고광원 고경희 김기무 김미란 김창희 노은실 신혜숙 오병국 고 은
감사헌금	고한성 백종희 마이클 데이빗 백복녀 백연희 백선희 이문구 이은숙 허지영
주일헌금	김미란 김수홍 김영순 김정민 권새미 김희숙 노정해 무 명 한순진 한신옥 함용선 허지영 황동필
십 일 조	김기무 김미란 김창희 노은실 마네아 허지영 신혜숙
감사헌금	고한성 백종희 마이클 데이빗 백복녀 백연희 백선희 성현기 김은희 오윤지 이문구 이은숙 허지영
주일헌금	김미란 김수홍 김영순 김은희 성현기 김정민 권새미 김희숙 남병숙 무 명 박경원 박길환 김숙희 송인철 윤재호 이광숙 최진길 한순진 한신옥 함용선 허지영 황동필 주일학교
선교헌금	김창용 김경희 윤재호
십 일 조	고광원 고경희 김기무 김미란 김창용 김경희 김창희 노은실 남병숙 마네아 허지영 신혜숙 오병국 고 은 한순진 한신옥 Timothy Han
감사헌금	고한성 백종희 백복녀 백연희 백선희 이광숙 이문구 이은숙 허지영
주일헌금	김미란 김수홍 김희숙 남병숙 무 명 윤재호 이원규 한순진 한신옥 허지영 황동필 주일학교
선교헌금	한순진 한신옥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집회 안내

증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Crumbs for Life

Grace Avoidance

The couple had done a very good deed, selling a piece of property and donating much of the proceeds to the church. They did only one thing wrong in an effort to appear more spiritual, they acted as if they were donating much of the proceeds. In other words, they misrepresented themselves spiritually. The harsh response to Ananias and Sapphira shows how seriously God view hypocrisy.

I know of only two alternatives to hypocrisy: perfection or honesty. Since I have never met a person who loves the Lord our God all her heart, mind, and soul, and loves her neighbor as herself, I do not view perfection as a realistic alternative. Our only option, then is honesty that leads to repentance. As the Bible shows, God's grace can cover any sin, including murder, infidelity, or betrayal. Yet by definition grace must be received, and hypocrisy disguises our need to receive grace. When the masks fall, hypocrisy is exposed as an elaborate ruse to avoid grace.

- Philip Yancy -